매일 INDEX

12면
조선 후기 익산 정보 총망라
시, '문헌자료총서' 발간

전주매일
www.jjmaeil.com
2020년 9월 16일 수요일 (음 7월 29일) 제2621호
대표전화(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곽 경 문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올 추석, 따뜻한 거리두기 동참을"

송하진 도지사, 고향 방문 등 이동 · 접촉 자제 호소
경제안정 · 방역강화 · 소외계층 복지대책 추진키로

송하진 도지사는 코로나19 재확산의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공동체를 위한 '따뜻한 거리두기'를 강조했다.

송 지사는 15일 전북도청 기자회견장에서 추석 연휴 코로나19 차단을 위한 '따뜻한 거리두기' 참여 호소문을 발표하고 도민과 출향민 등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아울러 "그리운 부모와 친지를 만나 두터운 정을 나누는 소중한 때이지만 올해만큼은 만남을 잠시 미루고 공동체를 위하는 마음으로 '따뜻한 거리두기'에 함께 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며, "거리두기로 우리가 서로 안전하고 건강할 때 진정한 가정의 행복도 가능할 것이다"고 말했다.

호소문을 통해 송 지사는 추석 연휴 고향 방문을 비롯한 대규모 이동이 과거 중국의 사스 감염 확산을 재현하고 부모 등 고령자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송 지사는 "17년 전 전 세계를 두려움에 빠뜨린 사스 바이러스도 중국 명절인 '춘절'에 급격하게 전파된 적이 있다"며 "고향을 찾아오는 일도 수도권 등 타지역을 방문하는 일도 결국은 대규모 감염의 불씨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는 가족 간 전파 비율이 비 가족 간 전파 비율의 여섯 배가 넘고 고령자 사망률은 70대가 7%, 80대가 20%에 달할 정도로 상당히 치명적인 질환이다"며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 코로나19 조기 안정화를 위해 이번 추석에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따뜻한 거리두기'를 실천하자"고 덧붙였다.

특히 송하진 지사는 일부 보수단체가 예고하고 있는 개천절 대규모 집회와 관련해 우려를 표하며 자제를 요구했다.

송 지사는 "광복절 집회 여파로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아이들이 유치원과 학교에 가지 못하며 상인들은 눈물 흘리며 가게 문을 닫는 등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다"며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사랑한다면 부디 이번 대규모 집회 참석을 자제하고 코로나19 극복에 뜻을 모아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고향 방문을 자제해야 하는 출향민 등 도민의 아쉬움을 달래기 위한 대책도 호소문을 통해 언급했다.

송 지사는 "전북도는 방역 강화와 지역경제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벌초 서비스 제공, 봉안시설 예약제 도입 등 방문 최소화 유도, 다중이용시설 방역 강화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뿐만 아니라 "민생경제를 위해 공공기관 온누리 상품권 활용 확대, 제수용품 판매를 위한 드라이브스루 시행, 대형마트 연계 전북농산물대전 개최 등을 이행하겠다"며 "위기에 더욱 취약한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 대책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송 지사는 "여러 경험에서 확인한 바 이동과 접촉은 바이러스 확산의 지름길이다"며, "진심과 사랑은 마음으로도 충분히 전할 수 있으니 비록 올해는 함께 하지 못해도 따스한 마음으로 더욱 하나 되는 추석을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호소문 발표에 이어 송하진 지사는 전북도민회 임원과 향우 등 출향도민에게 '따뜻한 거리두기' 동참을 권하는 서한문을 발송하고 전북도민회 홈페이지와 출향도민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활용해 이같은 내용을 널리 알릴 예정이다.

한편 전북도는 16일 최훈 행정부지사가 코로나19 방역과 민생안정 관련 내용을 담은 올해 추석 명절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15일 전북도청 기자회견장에서 추석 연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과 민생안정을 위한 '따뜻한 거리두기' 참여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내년부터 이륜차 정기검사 확대

전북도, 50cc 이상… 최대 20만원까지 과태료

레저용 · 사업용(배달, 택배, 퀵서비스) 등 교통수단의 한 축으로 이용되는 이륜자동차의 정기검사가 내년 1월 1일부터 기존 대형에서 중, 소형까지 확대된다.

현재 이륜자동차는 전국적으로 전체 자동차등록 대수(이륜차 포함)의 약 10% 수준이며 전체 도로 이동오염원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2016년 기준) 중 일산화탄소는 17%(연간 41만톤), 휘발성유기화합물은 6%(연간 3만톤)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14년부터 이륜자동차의 배출가스, 소음 정기검사 제도를 시행했고 내년부터 정기검사 확대를 통해 대기환경 개선과 함께 소음 관리로 도민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정기검사 대상은 260cc를 초과하는 대형뿐만 아니라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 신고된 중, 소형(50cc 이상~260cc 이하) 이륜자동차도 포함된다.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기관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지정 정비사업자로 최초 등록신고 후 유효기간(3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 신청해야 하며 그 후에는 매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기검사 신청기간 안내와 경과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약 30~45일 전에 매달 1일과 15일 2회에 걸쳐 1차 안내와 15~30일 전에 매달 1일, 15일 2회에 걸쳐 2차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신청기간 경과 통지는 등록 관할 시, 군에서 정기검사 신청기간이 경과한 이륜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신청기간이 지난날부터 10일 이내, 20일 이내 2회에 걸쳐 통지하게 된다.

한편 이번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의 확대로 전북도는 내년에 총 3,239대가 정기검사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는 올해 정기검사 대상인 999대에 비해 대폭 늘어난 수치로 보다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도내에는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의 한국교통안전공단 5개소 외에 6개소의 민간 지정 정비사업자를 지정해 놓았으며 지정을 원하는 정비사업자는 관련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등 등록요건을 갖추고 해당 시군에 지정 신청을 하면 된다.

한편 이륜자동차의 소유자가 검사기관이 부족한 도서 지역에 거주할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출장검사도 병행 지원할 예정이다.

정기검사 유효기간의 연장 및 유예는 천재지변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출장검사를 못할 경우나 도난 · 사고 발생 또는 동절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구비서류를 갖추고 신청할 수 있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정기검사 신청기간(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만료일의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2만원, 30일을 초과 시 매 3일 초과 시 마다 1만원씩 시군에서 최대 2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정기검사 대상 제외 이륜자동차는 전기이륜차와 배기량이 50cc 미만, 배기량이 50cc 이상 260cc 이하로 2017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이륜자동차, 외교관 등이 소유하고 있는 차 등이다.

전북도 김인태 환경녹지국장은 "정기검사 확대 관련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지정정비사업자를 확대해 검사에 따른 도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제로플라스틱 전북 객리단길 '국무총리상' 영예

일회용 플라스틱 저감 첫 사례

전북도와 전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함께 민관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로플라스틱 전북 객리단길 시범사업'이 제22회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에서 국무총리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전북도의 협력사업이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개최한 '2020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 기념식에서 최종 수상작으로 호명됐다.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시민 등 지역사회 주요 구성원이 파트너십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의제를 수립하고 실천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함께 해마다 지속가능발전 대상을 공모하고 있다.

이번 국무총리상 수상은 ▲전 세계적 문제인 일회용 플라스틱 범람에 대한 거버넌스적 해결방안 모색 ▲일회용 플라스틱 다소비 구역을 설정하여 민관협의체를 구성 ▲테이크아웃용 공용컵(TURN블러) 제작 ▲민관협의체 협약업체가 공동회수 시스템을 만들어 공동회수하는 자원순환 모델 구축을 통해 일회용 플라스틱 저감 운동을 확산한 전국 최초의 사례가 됐다. 작년 한해 공유컵과 생분해성 용기를 통해 16만여 개의 일회용 플라스틱을 저감 했으며 이는 한 줄로 늘어놓았을 때 27km에 달하며 전주에서 익산시청까지의 거리와 같다. 제로플라스틱전북 운동은 현재 객리단길(전주객사1, 2, 3길) 내 카페 16곳이 참여하며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에도 꾸준히 일회용품 줄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은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제로플라스틱 전북 사업에 참여하는 공유컵 우수이용 시민 시상을 위한 고급 텀블러를 제작해 제공하고 있다.

도와 전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제로플라스틱 전북 객리단길 시범사업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친환경 생활문화로 전북도 전반으로 확산 정착될 수 있도록 멈추지 않고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올해로 20주년을 맞는 전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지난 2000년 창립해 민, 관, 기업 등의 참여를 기반으로 한 거버넌스 구축과 도민참여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 추진해 오고 있다.

/유호상 기자